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된 청와대 문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이 고 김명환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건의 발표 시점과 내용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적 시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적잖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문건을 국정농단 사태와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적폐 청산의 새로운 계기로 마련하고자 하는 기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특검이 법원을 통해 이런 자료들의 사실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특검이 (특검이) 요청한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문건을 공개한 당일 사본을 검열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하

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현 대변인은 "300 종의 관련 자료 내용을 볼 때 박근혜 정권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그토록 막은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이다"라며 "발견된 문건의 실체를 밝히고 개별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 시종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문건 중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계이트 관련 재판에 참고자료로 활용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공개한 내용에는 고 김명환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부터 시작해 삼성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한 흔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를 두고 "소위 최순실 국

靑·與 “국정농단·적폐 청산 새로운 계기” 野 “여론몰이식 공세...정치적 의도 우려” 국회 정상화·여야 협치 모드에 악재 우려

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개된 문건들이 명백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아전인수(我田引水)적 해석이 아닐 수 없다"며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주장하면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야당 시절 정부 문건을 폭로하듯이 이용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청와대와 정부 부처당도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있어서 안 되고 야당도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이 문건을 발견한 즉시 공개하지 않고 시간을 두었다가 발표한 것에도 의혹의 시선이 모아진다. 청와대가 문건을 발견한 시점은 지난 3일, 문건의 내용을 발표한 건 지난 14일로 10여 일 간의 시간을 묵혀두었다 발표할 셈이 된다. 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청와대 가) 지난 7월 3일 해당 문건을 받

견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인 오늘까지 문건에 대해 함구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적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그 동안에 해외순방 기간이 포함돼 있어서 많은 인력들이 해외에 나가 있었기에 오늘(14일)에 서야 발표할 완성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당은 이미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비판의 초점을 켜왔다. 국민의당도 "보수 야당들이 자료의 성격과 발표 시점 등을 꼬부리 잡아 정치쟁점화 하려는 것도 절대 옳지 않다"면서도 "지정기록물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문건 내용 일부를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민정수석실 문건이 불려올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는 미지수이나 여야 간 공방이 심화될 경우 1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들 간 회동까지 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가 회동에서 테이블에 오를 경우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를 계기로 야권과의 협치 모드를 조성하려 했던 청와대의 계획에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김윤호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책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여야 5당 반응 ‘온도차’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16일 여야 5당은 온도차를 보였다.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규정 속도를 한참 위반했다"며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건 동의한다. 문제는 속도"라며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이 갑자기 16.4% 오르고

있다.

손규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현재 월 수익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약 112만 명, 전체 업체 수의 31.6%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 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 "경기 2%↑ 불구 최저임금 16.4%↑"
- 바른정당·국민의당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해야"
- 민주당은 "환영" 정의당 "생활임금 비취보면 부족"

이런 추세로 3년간 54%를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적하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종철 대변인은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인건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힘을 가진 정당이 개혁되고 보수의 가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게 맞다"며 "(자유한국당을) 개혁하는 것이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여기에 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탈당파) 의원들도 바른정당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에 호평을 내놓았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환영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큰 폭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이렇다한 평가를 내놓았다.

주혜선 대변인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만원인상의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한국당 의원 데려올 것”...한국당 측 “말도 안돼”

“역 유입 가능성도 높아”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박종진 전 채널A 앵커를 1호로 영입하는데 이어 '인재영입 2호'로 자유한국당 의원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라고 일축했

다.

바른정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5일 "(자유한국당에서) 돌아오려는 사람이 꽤 된다"고 귀뜸했다. 그러나 이 인물이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인지 제3의 인물인지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인재영입 대상들이) 한국당의 문체와 한계

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며 "지지를 등에서 (자유한국당에) 우위를 나타내면 우리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에 대해 "가능성이 낮아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에서 온 분들 중용하는 분위기 아니냐"며 역

으로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바른정당 탈당파인 장재원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인 힘을 가진 정당이 개혁되고 보수의 가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게 맞다"며 "(자유한국당을) 개혁하는 것이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여기에 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탈당파) 의원들도 바른정당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